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말라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8>

▲원문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바새가 세 가지 방법으로 남의 귀중한 물건을 가지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지는 것이 된다. 첫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몸을 사용하는 것이고, 셋째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 것이다.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마음을 내고 생각하여서 훔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몸을 사용하는 것은 몸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는 것이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다는 것은 물건이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들어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이다."

▲강의
오계 가운데 두번째는 불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른다.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른다. 남

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묵인하지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

출가한 수행자들은 필수품이 주어졌을 때만 받게 되어 있고, 재가자들은 정명(正命)에 따라

오계상경-12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할지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만과 사기를 이용하여 도둑질하는 경우이다.

도둑질이라는 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남의 소유이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셋째 도둑질하려는 비도덕적인 의지가 있고, 넷째 훔치기 위한 특정한 수단을 이용하며, 다섯째 5전(五錢)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여섯째 실제로 남의 소유를 앗아가는 행위 자체이다. 여기서 5전의 값어치에 대한 주석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통용된 화폐 단위는 파나(pana, 錢)가 최저 단위였다. 서역의 1

본문에서 '다른 이의 소중한 물건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가 성립되는 여섯 가지 요인 가운데, 첫째 남의 소유인 것과 둘째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다섯째 5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의 세 가지에 해당된다. '마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려는 비도덕적인 의지를 말하고, '몸을 사용한다'는 것은

삼보 물건 훔친 죄 가장 무거워 도둑질 하면 불안하고 가난해져

대전(大錢)이 중국에서는 16소전(小錢)인데 율장에서 말하는 5전은 곧 80소전이 된다. 아무튼 5전이라는 돈의 값어치는 승단에서는 멸빈, 즉 승단에서 추방되는 중죄에 해당되고, 세속법에서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율장의 입장에서 5전의 가치가 많고 적은 것의 문제보다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최소한의 양과 그 정신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훔치기 위해 특정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다는 것은 여섯째의 실제로 남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 자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인연이 갖춰지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어 계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율장에서는 도둑질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는 삼보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도둑(盜戒)에도 극중(極重), 중죄

(重罪), 경죄(輕罪)의 차이가 있는데, 시방승물(十方僧物)이나 현전승물(現前僧物)을 훔쳤을 경우에는 그 죄가 팔만 사천의 부모를 죽이거나 오역죄를 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방등경>에 "오역죄나 네 가지 중죄를 범한 이는 내가 구원할 수 있지만 승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나로서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백문>에서는 "삼보의 물건을 훔쳤다가 만약 갚았다면 무간지옥에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올 수 있지만, 갚지 않는 자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보의 물건이나 스승, 부모,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의 물건이나 국가의 공공물건, 군용의 물건을 훔친 경우, 그 훔친 재물의 가치가 8푼의 은자(銀子) 이상이면 중죄(重罪)가 되고, 8푼의 은자 이하이면 중죄(中罪) 또는 경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잃게 된 사람이 받는 고통에 따라서도 중죄와 경죄로 나뉘었다고 하였다.

결국 도둑(盜戒)은 어떠한 수단이 이용되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그것을 취하는 한, 뒤따르는 것은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로 인한 고통, 또는 다른 선업으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업보가 따를 뿐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해인총림 월원장>

'사섭법' 보살행 실천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

천상천하 유아독존 / 삼계개고 아담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 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니다. 보살행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에 맞는 보살행법을 찾아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사섭법(四攝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섭법 또는 사섭사(四攝事)란 사십이 중생을 제도할 때에 취하는 네 가지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布施)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재물을 기꺼이 베푸는 일입니다. 둘째는 애어(愛語)로서 사람들에게

법회 중계

원효사 초하루법회

(2000년 5월 4일)



학봉스님 (조동종 총무원장)

진리·재물 베풀고
늘 부드러운 말하며
선행으로 이익주고
함께 일하며 제도하라

거움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보시란 법보시이며, 가장 훌륭한 말이란 선남자가 듣기를 원하는 때에 맞추어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이행이란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세우게 하고, 계율을 세우려는 사람에게서는 깨끗한 계율로, 아기는 사람에게서는 보시로, 나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바른 지혜로써 이끌어 들이게 그것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동리(同利)란 이른바 아라한에게는 아라한을, 아나함에게는 아나함을, 사다함에게는 사다함을, 수다원에게는 수다원을, 계율이 청정한 사람에게서는 청정한 계율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철학자·평론가 불교 적극 수용

프랑스 불교는 20세기 말 지식계와 문화계에 스며들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특히 동시대 세계 지성계를 이끌고 있는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모리스 블랑쇼, 주네투 등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과 평론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유 체계를 설명하는 주요 논리로 불교 사상을 적극 수용했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신(神)',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사유와 행동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심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인간의 삶을 포함하여 우주 내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들을 설명하여 주는 영구불변의 틀로서의 '원칙/구조' (예컨대, 인간적 우주적 현상들을 선/악, 참/거짓, 음/양, 자연/문화 등의 이분법적 갈등구조로 파악하여 설명하는 따위) 같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런 것들이 영구 불변하는 실체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것들이 미망일 뿐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이상 중

세계의 불교학 <18> 프랑스 ①

심의 이분법 붕괴와 불교 사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만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은 스스로, '사상의 원천'으로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를 주목하고 있다. 보르헤스가 불교에 정통하고 불교 관련 저서까지 출판했다는 것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세기 말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프랑스 불교학은 유식·요가학과 등의 경전과 주석서 연구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898년 루이스 디 라 발레가 <쁘라즈나카마티(Prajnakamati)>의 주석서 아홉 번째 장을 출판해 프랑스 불교학의 시작을 알린 이후, 1902년 세나르는 <라리타비스타라(Lalitavistara·보요경 일종)>를 출판했다. 세나르는 이 책에서 부처님을 '신격화'하는데 열중했는데, 부처님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후에 비판되었다. 또 실비안 레비는 마명(1~2세기·인도의 <불소행찬> 등 유식

학파나 요가학파의 경전들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바스반두의 저서 <빔사티카(Vimsatika)>와 <트림시카(Trimsika)>의 새롭게 발견했는데, 요가학과 이해에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 발견은 실비안이 불교 경전의 비

"자력으로 해탈" 여론 주도층 매료 가톨릭·기독교 이어 3대 종교 꿈꿔

교연구와 다른 학파들의 불교 원전 탐독의 계기가 되었다. 실비안의 제자인 라 발레 포시옹 역시 6권의 '바스반두 연구서'를 발간할 만큼 요가학과를 깊이 연구했지만, 그보다는 대승불교의 철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엽까지 계속된 이러한 연구 경향은, 프랑스에서 불교의 교세가 커지고 또 실비안 레비는 마명(1~2세기·인도의 <불소행찬> 등 유식



◇아리범회를 통행하는 프랑스 불자들이.

을 받은 회사의 중견간부나 자유직업 종사자가 많아 여론형성층의 종교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이와 같이 60년대 말부터 조금씩 프랑스 사회에 불기 시작한 불교 열기의 이유를 시사주간지 '렉스'라고 불리는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가치와 현대의 다양한 갈망을 해결하는 완벽한 종교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불교는 가톨릭과 같이 절대신에 의한 외부적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수양과 성찰을 통해 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이라는 것이다.

오중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氣 발생의 신비 전자파 차단 행운의 달마도 순금카드!

나쁜 氣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속에 간직하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행운과 氣를 선물하세요

정통 달마조사도의 대가(大家)이신 오인(悟印)법사님의 달마도 원본 작품

앞면: 오인법사달마도

뒷면: ①반아심경

뒷면: ②사업번창부

앞면: 달마도 순금판 액자

순금판 크기: 11×16cm
표구액자크기: 27×32cm

달마도 상반신

달마도 전신상

앞면: 달마도 순금판 액자(3종)

(순금판 액식고리)

뒷면: 반아심경(외 3종)

氣 인증서를 꼭 확인하세요.

순금의 함량과 제품의 품질에서 최고임을 자신합니다.

대한 불교유물증
해동관음선원
氣 인증서

앞면: 달마도 순금판 액식고리

뒷면: 달마도 순금판 액식고리

인증서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길 10 (주)골드타운

발행: 2000년 5월 10일

순금 함량: 99.9%

부처님 오신날 천만불자 보시용품

(주)골드타운은 불사보금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판매수익금의 일부분은 불사건립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크기로 오인법사의 정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되었습니다. 표구액자(27×32cm),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cm) 일반판에 비해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액식고리

달마도 순금카드(3×4cm)를 아크릴판 액식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셋트 25,000원

구입문의상담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국내 배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 적상품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 사진, 글씨, 로고 등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구매시 사은품증정!

제조판매: (주)골드타운

10만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02)926-7377/7315

(24시간 공휴일 접수함) <http://www.goldsale.co.kr>